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 연준, 6천 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

- 미 연준은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를 통해 향후 8개월간 매달 750억 달러 규모로 총 6,0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는 내용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함.
 - 이번 경기부양책은 장기금리를 낮추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연준의 두 번째 대규모 국채매입이며, 성명을 통해 향후에도 추가적 조치가 가능함을 밝힘.
 - 3,0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의 국채 매입을 전망했던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발표를 환영했으나 8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매입 속도에 대해서는 실망을 나타내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연준의 발표 하루 전 치루어진 중간선거에서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불만으로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었으며, 이로 인해 향후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됨.
 - 현재까지는 경기부양에 있어 의회가 연준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연준의 독립적 역할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하원에 입각함으로써 연준이 의회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음.
 - 마이크 펜스(Mike Pence) 공화당 하원의원은 통화공급을 증가시켜 달러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은 막대한 위험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, 의회는 인플레이션을 유도해서 근본적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정책 대신 확대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.
-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채매입계획이 소비와 투자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.
 - 연준 내에서 유일하게 추가 경기부양책에 반대했던 토마스 호닉(Thomas Hoenig)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는 이번 조치가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차입을 부추겨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.
 - 또한 지난 6월 이후 주요국 통화대비 7.5%절하된 바 있는 달러화가 이번 조치로 인해 추가 절하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율과 무역에 관한 주요국 간의 공조체제가 와해될 위험이 존재함.

(New York Times, 11/4)